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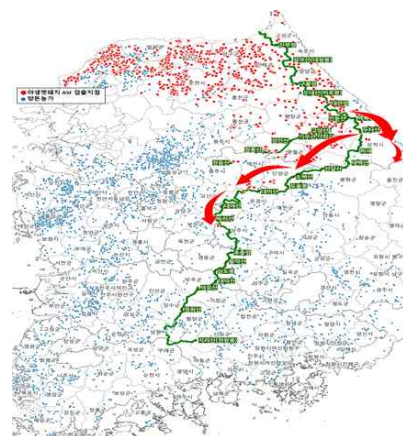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[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]

-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발생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피해 초래
 - ('20/'21년) 전국 109건/경남 5건, ('21/'22년) 전국 47건/경남 2건
- 해외(유럽, 중국 등)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, 매년 동절기 국내-유럽 중첩철새경로상 철새에 의한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.
 - 위험시기(동절기) 방역 강화 및 평시 농가 시설 개선 등 주요 유입 원인 사전 차단·제거 필요

[아프리카돼지열병]
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현황
 - 양돈농장 : 3개 시도 9개 시군 21건('19.9.16. ~ '21.10.6.) *경남 비발생
 - 야생멧돼지 : 4개 시도 28개 시군 2,600건('19.10.2. ~) *경남 비발생
- 야생멧돼지 ASF 발생 전년 동기 대비 70% 증가하여 '19년 최초 경기북부·강원북부 → 강원중·남부 → 충북동·북부 → 경북북부로 확산(남하하여 확산)
- 야생멧돼지 ASF가 백두대간과 소백산맥을 따라 지속 확산 중
- 보은(1.28), 상주(2.8)에서 감염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, 울진(2.10), 문경(2.22)에서도 발생하는 등 오염지역 확산세
- 충주 살미면·상주 공성면(3.23, 수렵)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경기남부·충남·전북·경남 등도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상황



[구제역]

- 전국 '19년 3건(경기2, 충북1) 발생 / 경남 '14년 1건(합천1) 이후 비발생 유지
 - '11년 전국 백신접종 확대로 현재 모든 우체류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
- 현재 해외 4개국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, '21년 총 142건 발생

□ 추진실적

[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]

- AI·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계획 수립·추진(권한대행 방침, '21.10.)
 - 기간 : '21. 10. ~ '22. 2. / 5개 핵심, 13개 세부과제 수립·추진
- 전국 AI 확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·운영('21.11. ~ '22.3.)
- 긴급 방역비 투입 : 585백만원(특교세 560, 긴급방역비 25)
- 고병원성 AI 반복 발생 육용오리 단지 동절기 사육제한 추진 : 5호
 - 기간 : '21. 10. ~ '22. 2. / 하동군 옥종면 소재 육용오리 단지(2회 발생)
- 시·군별 AI 발생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별 방역강화 조치
 - 축산차량 이동, 사육농가수 등 위험도 평가 및 고위험, 중위험 시·군 방역 강화 조치
- 가축방역 및 시료채취 차량 환경시료 조류인플루엔자 검사
- 농가별 전담관 지정(384농장, 292명)으로 차단방역 실태점검·예찰 강화
-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확대 운영 : 평시 20개소 → 확대 45개소
- 산란계 밀집단지(양산시 상북면) 맞춤형 방역관리 : 환적장, 통제초소 설치 및 매주 합동점검

[아프리카돼지열병]

- ASF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·24시간 운영('19.9.24 ~)
- 야생멧돼지 ASF 남하에 따른 시군별 위험등급(고위험, 위험, 일반) 평가 및 방역관리 방안 추진
-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발생지역 돼지(생축·분뇨·사료) 반입·반출 금지 조치
 - 금지지역 : 5개 시도 40개 시군(경기10, 인천1, 강원18, 충북5, 경북6)
-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, 방역시설(거점소독·통제초소) 22개소 운영
- 소독자원 총동원(소독차량 28대, 공동방제단 86개반, 임차방역차 3대 동원) 농장 일일 소독지원
-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상시예찰 검사 강화 : ('21년) 9,800건 → ('22년) 11,800건
- 농장별 ASF 담당담관(127명) 지정, 방역수칙 홍보·점검 실시
- 중앙-지자체 합동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실태 일제점검(7회)
- 양돈농장 밀집사육단지 차단 울타리 설치 (밀양시 무안신생마을, 환경부)
-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지원(2개사업, 502농가, 10,666백만원)

[구제역]

- 소·돼지 분뇨의 권역 외(경남·부산·울산) 이동제한 조치 시행('21.11~ '22.2)
- 거래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및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
- 구제역 백신 공급(6,446천두) 및 백신접종 시술비(487천두) 지원
- 구제역 상·하반기(4, 10월) 일제접종 및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추진
 - 일제접종 627천두/ 백신 항체 검사 4,890농가 59,175두 검사(항체양성률 평균 93%)

□ 주요성과(결과)

[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]

-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로 전년 대비 발생 저감('20/'21년 5건 → '21/'22년 2건)
- 도내 AI 발생 이후 신속한 방역조치 추가 확산 차단
 - 통제초소 4개소, 소독자원 13대 투입 소독·통제 강화
 - 방역대 내 전 가금농가 5일 간격 정밀검사로 오염원 사전 검색
 - 철새 북상 시기 김해시 산란계 농가 발생 이후 비발생
- AI 발생 가금농가 피해 최소화(전년 대비 피해액 58% 감소, '16/'17년 대비 70% 감소)
 - 피해액 : ('16/'17) 78억원 → ('20/'21) 56억원 → ('21/'22) 23억원

[아프리카돼지열병]

- 효율적인 차단방역 추진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청정지역 유지
-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추진
 - 매주 화요일 가축방역상황점검 영상회의(농식품부↔도↔시군)
 -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 현장점검 회의(215일, 46일) 및 담당공무원 교육(5.13일)
 - 양돈농가 가이드 라인 교육·홍보 및 질의응답집 배포

[구제역]

-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, '14년 이후 도내 구제역 비발생 유지
- 상·하반기 일제접종 및 정기적 백신접종 여부 모니터링으로, 백신 미흡 농가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누락 개체 관리 추진으로 취약분야 중점관리
 - (백신미흡농장)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관리
 - 백신항체양성률 : 소 97.6%, 돼지 89.6%, 염소 91.3% 수준 유지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미흡 확인
 -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점검을 통한 위험시기 전 농가 방역미흡사항 보완
 - 방역 준수 사항 리플렛 제작,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 등 홍보 강화
- 양돈농장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지연
 -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
 - 최근 사료 및 시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공사 지연